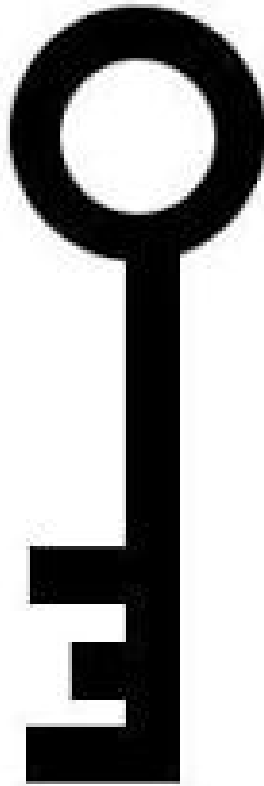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 헬렌 켈러



박광일의 [SECRET KEY]

고민하는
Point

[3월 교육청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1회)]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측정 및 추정 오답률		해당 문항		매력적 오답
오답률 5위	50%내외	14번	(문법) - 문장 성분, 안은 안긴문장	⑤번 선지
오답률 4위	55%내외	22번	(문학) - 현대시 [보기] 문항 - 송수권 '까치밥'+곽재구 '새벽 편지'	①번 선지
오답률 3위	65%내외	17번	(독서) - 인문 지문 '지문의 정보 확인' - 지문 : EBS 수능특강 독서 64P 연계	①번 선지
오답률 2위	70%내외	30번	(독서) - 과학·기술 지문 [보기] 문항	③, ④번 선지
오답률 1위	75%내외	31번	(독서) - 과학·기술 지문 [보기] 문항	③번 선지

[문학] 현대소설 : 윤홍길, '장마' / 고전시가 : 정극인, '상춘곡'

[문법] 12번, 15번

[독서] 사회 지문 : 민사 소송과 관련한 실체법과 절차법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약 50%)] : 문법 14번 문항

[Killer-Point]	
Ⓐ 그녀는 조카에게 예쁜 인형을 주었다. Ⓑ 그 당시 우리는 큰 포부를 품고 있었다. Ⓒ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모르게 잠들었다.	
⑤	Ⓑ의 '큰'과 Ⓒ의 '많은'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Killer-Point]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절의 서술어다. 많은 학생들은 '큰 포부'에서 '큰'을 관형절로 판단하지 못한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을 경우, 이는 관형절의 서술어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K.P) 이 문장에서 '큰'은 '포부가 크다'라는 관형절의 서술어이며,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관형절의 주어가 동일하므로, 관형절의 주어를 생략한 경우다.(K.P) 즉, 관계 관형절이다. (세부 내용은 문법문항 분석지 참고)

[안은/안긴문장' 고난도 기출] : 출수 문법 30p 2019. 9월 모평 15번(오답률 4위 56.6%)

Q. 아래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19 9월 평가원]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정답] ④ ㉣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한 관형절 '내가 늘 쉬던' 으로, 명사 '공원'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문장인 '내가 늘 공원에서 쉬었다.'에서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문장 성분인 부 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된 채 안긴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

- ① ㉠에서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 '자식이 건강하기' 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자식이 건강하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② ㉡에서 안긴문장은 '-이'가 결합한 부사절 '연락도 없이'로, 서술어 '안 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연락도 없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③ ㉢에서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명사절 '자신의 판단이 옳 았음'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⑤ ㉤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절 '아주 어려운'으 로, 명사 '과제'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문장인 '과제 가 아주 어렵다.'에서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문장 성분인 주어 '과제가'가 생략된 채 안긴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률 4위(약 55%)] : 현대시 22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④	(가)의 화자는 '외로운 길손'을 위해 '사랑방 말쿠지'에 '등불'을 켜 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의 화자는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해 '새벽에 깨어나는' 모습을 통해 본보기가 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군.
[선지판단]	→ (가)에서 '등불'은 '까치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일 뿐, 실제로 할아버지가 '외로운 길손'을 위해 '사랑방 말쿠지'에 '등불'을 켜 놓은 것은 아니다. (나)에서 화자는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려고 하는 것이다.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①	(가)의 화자는 고향을 모르는 아이들이 '긴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 따는' 순간에, (나)의 화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시각에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떠올리고 있군.
[선지판단]	→ (가)의 화자는 '긴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조카아이들을 보면서 '까치밥 따지 말라'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적절하다. → (나)의 화자는 [보기]에 근거해 볼 때,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순간(시각)은 바로 새벽이다. 이 새벽을 화자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Killer-Point 1]	④번 선지는 차분하게 지문(작품)의 내용을 돌아가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면 "현저한 차이(분명하게 틀린 선지)"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지다. ①번 선지에서 애매함을 느껴 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 선지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현저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즉시 판단하기 보다는 세모 표시를 하고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Killer-Point 2]	[보기] 문항을 풀 때, 3가지를 명심하자. (1) [보기] 내용은 최대한 열심히 읽는다.(그렇다고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2) 선지 내용이 [보기]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3) 선지에서 제시한 지문(작품)의 한 부분이 선지 내용과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1)~(3)을 모두 판단하여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 (1)을 무시하고, 지문(작품)의 의미만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경우 → (2)만 판단하고 (3)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사실관계)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훈련도감 9p "우포늪 왁새" / 2019. 9월 모평(오답률 2위 71.9%)	
Q.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D] :	[학생 수준이 아닌 선지]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학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선지'가 등장할 경우, 세모 표시하고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선지를 찾아야 한다.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보기]에서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한다고 제시했으며, 지문(작품)에서도 '완창 한 판 잘 끝났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라는 표현을 통해 '왁새=소리꾼'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Tip]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에서 꼭 점검해야 할 표현!	
① 대비, 대조, 상반 ② 긍정, 부정 ③ 구체적 정서 ④ 극복 의지	

[오답률 3위(약 65%)] : 철학 17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②	루이스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 개념을 해명하였다.
[선지판단]	→ 1문단에서 철학자들이 인과 관계에 대해 탐구할 때, 주로 원인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보를 제시했고 2문단에서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을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2문단에서 루이스에 의하면 사건 C를 사건 E의 원인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사건 C와 사건 E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 +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사건 C와 사건 E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반사실적 조건문의 진위 여부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하나의 조건은 경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 개념을 해명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①	철학자들은 직관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선지판단]	→ 3문단의 '갑이 돌을 던지지 않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어떤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부합한다. 따라서 '갑이 돌을 던진 사건'은 '유리창이 깨진 사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철학자인 루이스가 직관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의 '이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분석을 통해 원인 개념을 해명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어긋남을 보여 주는 반례라는 것이 루이스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철학자들이 직관을 근거로 삼아 루이스를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ller-Point 1]	선지를 약화시키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펼치기도 한다'에서 보조사 '도'는 선택지의 내용을 단정해주는 표현이기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정도의 내용이 된다. 즉 선지를 약화시키는 표현이 있다면 맞는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맞게 하려고 애를 쓴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Killer-Point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고 답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①번을 선택한 학생들 중 일부는 답이 없는 것 같으니 직관을 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①번을 선택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념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지문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고 답을 선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2009. 9월 모평)	
45.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론 기관이 알 권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②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③ 알 권리가 제한되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된다. ④ 알 권리에는 정보 수집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⑤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는 강화된다. <p>→ 정답은 ⑤번으로, 선지를 약화시키는 표현이 있는 ①번과 ②번은 적절한 선택지였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의 의미와 가치 (2009. 6월 모평)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다.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방송 도중 전화 모금에 참여했다. 마음은 뿌듯했지만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①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는 아쉬움이 있군.
 - ②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군.
 - ④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군.
 - ⑤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이도 연민을 가질 수 있군.
- 정답은 ③번으로, 선지를 약화시키는 표현이 있는 ②번은 적절한 선택지였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위치적 군비 경쟁 (2008. 6월 모평)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 정답은 ②번으로, 선지를 약화시키는 표현이 있는 ③번은 적절한 선택지였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개념사란 무엇인가 (2013. 6월 모평)

21.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 정답은 ②번으로, 선지를 약화시키는 표현이 있는 ⑤번은 적절한 선택지였다.

[오답률 2위(약 70%)] : 과학 30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②	동적 평형 상태에서 소금물과 설탕물의 삼투압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을 소금물 수면에 가하면 역삼투 현상이 발생하겠군.
[선지판단]	→ 1문단에서 삼투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고 3문단에서 역삼투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한다. 삼투 현상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 역삼투 현상은 삼투압보다 더 높은 압력을 오른쪽 관의 수면에 가하게 되면, 왼쪽 관의 수면 높이가 오른쪽 관의 수면 높이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이다. 즉 자발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더 높은 압력을 가해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들어왔다면 ②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매력적 오답 선지와 Killer-Point]	
④	더 이상 양쪽 관의 수면 높이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왼쪽 관의 용질 퍼텐셜과 오른쪽 관의 용질 퍼텐셜이 동일하겠군.
[선지판단]	→ 2문단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농도가 높은 쪽의 수면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라고 제시했다. 이 개념을 통해 더 이상 양쪽 관의 수면 높이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 =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문단 '그런데' 뒤에 주목할 때, U자형 관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양쪽의 용질 농도, 즉 단위부피당 용질의 분자 수가 동일해진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용질 퍼텐셜의 용질 퍼텐셜은 반트호프가 발견한 방정식으로 산출되는 삼투압과 절댓값이 같지만, 삼투압과 달리 항상 0 혹은 음의 값을 갖는다는 내용을 통해 용질 퍼텐셜의 값은 삼투압의 값을 구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삼투압은 기압이나 온도와 같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용질이나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관계없이 오직 용질의 분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 관과 오른쪽 관의 삼투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용질 퍼텐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물론 쉽지는 않다.^^)

[Killer-Point]	지문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 보기에 제시된 '단, 용액의 삼투압은, 기압이나 온도와 같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용질이나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관계없이 오직 용질의 분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장을 통해 삼투압이 용질의 분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만 잡았으면 4번 선택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오직'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선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유사한 평가원 사례]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2019. 9월 모평)			
3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 통 A~E가 있고, 각 진공 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 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이다.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 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진공 통	기체	분자의 질량(amu*)	단위 부피당기체 분자 수 (개 / cm ³)
A	질소	28	4 N
B	질소	28	2 N
C	질소	28	7 N
D	산소	32	N
E	이산화 탄소	44	N
*amu : 원자 질량 단위.			

[유사한 평가원 사례] : 슈퍼문 (2015, 수능 B형)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선지 판단의 기준 = 변수 : 1월(슈퍼문 관측) vs 7월(슈퍼문 관측) ⇒ 조차 비교”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선지 판단의 기준 = 변수 : 달이 근지점에 위치(1월) vs 달이 원지점에 위치(1월) ⇒ 조차 비교”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선지 판단의 기준 = 변수 : 슈퍼문이 관측될 때(7월) vs 원지점 보름달이 관측될 때(7월) ⇒ 조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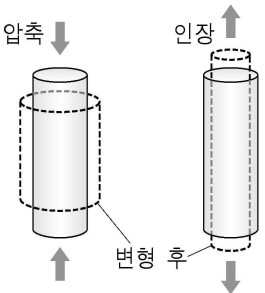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선지 판단의 기준 = 변수 :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1월 근지점) ⇒ 이심률 변화 전/후 조차 비교”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선지 판단의 기준 = 변수 :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7월 원지점) ⇒ 이심률 변화 전/후 조차 비교”

[오답률 1위(약 75%) 예측] : 과학 31번 문항

[적절한 선지(정답선지) 판단]	
①	A: 1.0MPa / B: 팽창 / C: 1.0MPa
[선지판단]	<p>A는 감자 세포질의 삼투압을 구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감자 세포질은 0MPa의 압력 퍼텐셜과 -1.0MPa의 수분 퍼텐셜을 가진다고 했다.</p> <p>5문단에서 물이 용매인 용액의 수분 퍼텐셜 = 용질 퍼텐셜 + 압력 퍼텐셜이라고 했고 용질 퍼텐셜 = 삼투압의 절댓값이지만 삼투압과 달리 항상 0 혹은 음의 값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용질 퍼텐셜은 -1.0MPa이고 삼투압은 절댓값은 같은 양의 값인 1.0MPa이다.</p> <p>B는 세포가 팽창하는가 축소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감자의 세포질의 수분퍼텐셜은 -1.0MPa이고 순수한 물의 수분퍼텐셜은 0MPa이다 5문단에서 수분 퍼텐셜이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물이 자발적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분퍼텐셜이 높은 물에서 수분퍼텐셜이 낮은 감자의 세포질로 물이 이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포질은 팽창해야 한다.</p> <p>C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감자 세포질의 압력 퍼텐셜을 구하는 것이다. 5문단에서 물이 용매인 용액의 수분 퍼텐셜= 용질 퍼텐셜 + 압력 퍼텐셜이라고 했고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수분 퍼텐셜이 동일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감자 세포질의 수분 퍼텐셜은 물과 동일한 0MPa이다. 5문단에서 물이 용매인 용액의 수분 퍼텐셜=용질 퍼텐셜 + 압력 퍼텐셜이라고 했고 <보기>에서 감자 세포질의 용질 퍼텐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A에서 계산한 대로 용질 퍼텐셜이 -1.0MPa이다. 그렇다면 압력퍼텐셜은 1.0MPa가 되어야 한다.</p>
[매력적 오답선지와 Killer-Point]	
③	A: 1.0 MPa / B: 팽창 / C: -1.0 MPa
[Killer-Point]	<p>복잡한 공식이나 과정이 나온다면 손으로 정리하자. ③번을 선택해 틀린 학생들은 계산 과정이나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공식이 나온다면 손으로 써서 정리하고 계산도 쓰면서 하는 것이 좋다.</p> <p>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분 퍼텐셜 = 용질 퍼텐셜 + 압력 퍼텐셜, 용질 퍼텐셜 = 삼투압의 절댓값이라는 두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됐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2017. 9월 모평)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p>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와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그리고 A와 B의 포아송 비는 변형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았다.(단, 힘을 가하기 전 A의 지름과 높이는 B와 동일하다.)</p>
<p>→ 철재 -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 /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 = 0.3</p> <p>콘크리트 -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 /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 = 0.15</p> <p>이 공식을 세우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었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명사 파생 접미사 vs 명사형 전성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	명사형 전성 어미
품사	명사	동사 / 형용사
특징	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② 서술성이 없음 ③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됨	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② 서술성이 있음 ③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수 있음 ④ 다른 어미(-다, -고, -며)로 대체 가능

: 명사 파생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 해당 단어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며, 명사형 전성 어미는 어간의 뒤에 붙어 해당 단어의 품사는 그대로 두고, 단어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예) 나는 그의 멋있는 웃음이 좋다.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서술성이 없음

→ 웃- + (으)ㅁ (명사 파생 접미사), 품사는 ‘명사’

그는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서술성이 있음

→ 웃- + (으)ㅁ (명사형 전성 어미), 품사는 ‘동사’

: [주의]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단어나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명사형이 된 용언이나 모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위의 예시에도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웃음’ 뒤에 조사 ‘이’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웃음’ 뒤에도 조사 ‘으’로써가 붙어있다. 즉, ‘조사의 결합 여부’로 명사 파생 접미사인지 명사형 전성 어미인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2. 안은 문장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u>상훈이가 모범생임을 안다.</u> 우리 등반대가 <u>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u>
② 명사형 어미 ‘-기’	모든 선생님들은 <u>가람이가 성공하기를</u> 확신했다. <u>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u> 너무 어렵다.

(2)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외워두자.)

표지(관형사형 전성어미)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3. 관형어와 부사어

(1) 관형어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관형사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관형어의 실현 양상	예
① 관형사	도현이가 <u>새</u> 옷을 입었다.
② 체언	나는 <u>시골</u> 풍경이 좋다.
③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나는 <u>시골의</u> 풍경이 좋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으)ㄹ’ 사용)	나는 마음이 <u>예쁜</u> 사람이 좋다.
⑤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u>학생인</u> 네가 왜 이런 것을 갖고 있지?

(2) 부사어 :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한다.

부사어의 실현 양상	예
① 부사	현지가 <u>빵을 허겁지겁</u> 먹는다.
② 부사 + 보조사	한중이가 <u>빨리도</u> 된다.
③ 체언 + 부사격 조사 (‘으로, 예, 에서, 부터’ 등)	유진이가 <u>빵을 손으로</u> 먹는다.
④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전성 어미(-게, -도록, -니까 등) + 부사 파생 접미사(-이)	승모는 <u>특이하게</u> 생겼다. 승모는 <u>소리도 없이</u> 집에 갔다.

[선택지 해설]

12. ㉔

정답해설 : 답은 ㉔야. 우선, ㉔는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용언'임을 알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㉔를 해석해 보자.

먼저, '도착하시기'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라는 것의 증거는 첫째, 부사어인 '일찍'의 수식을 받아. 둘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어. 셋째, 서술성이 있어. 서술성이 있는 것은 이 문장의 짜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 이 문장은 겹문장 중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야. 이때,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할머니께서는 내일 일찍 도착하시다'이며, 안은 문장은 '~가 힘들다'야. 즉, '할머니께서 내일 일찍 도착하시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기'가 쓰여 문장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주어'로 그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즉, '도착하시기'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고 이는 '-기'가 명사형 전성 어미라는 증거가 돼.

다음으로, '달리기'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라는 것의 증거는 첫째, 부사어인 '빨리'의 수식을 받아. 둘째, 서술성이 있어. '나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는 '나는 지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과 '나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졌어.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야.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거든. 이때,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나는 빨리 달린다'이며, 안은 문장은 '~를 시작하다'야. 즉, '나는 빨리 달린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기'가 쓰여 문장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목적어'로 그 역할을 드러내고 있어. 왜 목적어나고? 목적격 조사를 붙여보면 '나는 빨리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가능해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즉, '달리기'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고 이는 '-기'가 명사형 전성 어미라는 증거가 돼.

[오답풀이]

①의 '살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야. 그 증거는 첫째, 부사어 '홀로'의 수식을 받고, 둘째, 서술성이 있어. 문장의 짜임을 보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세상은 홀로 살다'이며, 안은 문장은 '~가 어렵다'야. 즉, '세상은 홀로 살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인 '살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으면서 해당 문장이 안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즉, '살기'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어. 반면, '믿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야. 그 증거로는 첫째, 수식하는 말을 넣어보면 '굳건한' 등의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부사어인 '많이' 등을 넣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을 통해 '믿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어. 둘째, 서술성이 없고, 셋째,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야.

②의 '달리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야. 그 증거로는 첫째, '아침에 ~를 하다'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붙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 '달리기'를 수식하고 있어. 둘째, '달리기'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육상 종목으로 서술성이 없어. 셋째, '달리기'는 '달음질을 하는 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야. 반면, '읽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야. 그 증거는 첫째, 부사어 '바르게'의 수식을 받고 있어. 둘째, 서술성이 있어. 문장의 짜임을 보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바르게 읽다'이며, 안은 문장은 '~는 ~이다'야. 이 중에서, '바르게 읽다'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어 명사의 역할을 획득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서술어로 역할을 하고 있어. 즉, '읽다'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어.

③의 '삶'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야. 그 증거로는 첫째, '우리 선조들은 불우하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어. 둘째, 서술성이 없으며, 셋째, '사는 일'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반면, '잠'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야. 그 증거는 첫째, '충분히'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둘째, 서술성이 있어. 문장의 짜임을 보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우리는 충분히 자다'이며, 안은 문장은 '~로서 ~를 풀다'야. 즉, '우리는 충분히 자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인 '자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어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안긴 명사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자다'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니까 서술성을 가지지.

④의 '알'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야 그 증거는 첫째, '많이'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어. 둘째, 서술성이 있어. 문장의 짜임을 보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많이 알다'야. '알다'라는 서술어 뒤에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어서 문장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주어'로 그 역할을 드러내고 있어. 즉, '알다'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니까 서술성을 가져. 반면, '웃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야. 그 증거는 첫째, '웃음이 너무 크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전성 어미 '-(으)ㄴ'이 붙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 '웃음'을 꾸며 주고 있어. 둘째, 서술성이 없으며, 셋째, '웃음'은 '웃는 일, 또는 그런 소리나 표정'라는 의미로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어.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서술어의 자릿수

○ 개념 :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

서술어의 자릿수	예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함	꽃이 <u>피었다</u> . 그녀는 <u>예쁘다</u>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를 필요로 함	상훈이가 무지개를 <u>바라보았다</u> . 도현이는 교사가 <u>되었다</u> . 동건이는 우성이와 <u>닮았다</u>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함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u>주었다</u> . 수여동사 철수가 나에게 그 사실을 <u>알려 주었다</u> . 본용언 + 보조용언 아버지는 승모를 사위로 <u>삼았다</u> .

2. 안은 문장

(1)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예 <u>학교에</u> 가는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u>철수가</u> 쓴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u>파도의 자취가 새겨져</u> 있는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예 나는 <u>철수가</u>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한종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형중이는 영지가 잡아선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ㄹ수록'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갔다.

[선택지 해설]

14. ①

정답해설 : 답은 ①이야. ㉔의 서술어는 '주었다'이며, 이 서술어는 '~가 ~에/에게 ~를'이라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는 곧, '주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자리 서술어라는 거야. 즉, ㉔에서 '주었다'는 주어인 '그녀는'이외에 부사어인 '조카에게'와 목적어인 '인형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지. 이에, ①번 선지는 '생겼다'는 '주어' 이외에 한 개의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주어 이외의 두 개의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니까!

[오답풀이]

㉔를 살펴보면, ㉔는 겹문장 중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야. 이에, 안은 문장은 '그 당시 우리는 포부를 품고 있었다'이며, 관형절로 안긴 문장은 '포부가 크다'야. 서술어의 어간인 '크-'에 관형사형 어미 '-(으)'이 붙고,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에서 중복되는 부분인 '포부'를 삭제해 '큰'이라는 안긴 문장이 만들어졌지. 이때, '포부'는 안은 문장에서 목적격조사 '를'을 가지며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긴 문장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가지며 주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㉔를 살펴보면, ㉔는 겹문장 중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자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야. ㉔번 선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만 확인해 주면 돼. 먼저, 안은 문장은 '학생들이 잠들었다'이며,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선생님이 모르다'야. 서술어 '모르다'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붙어서 부사절이 형성 되었고, 안은 문장에서 '잠들었다'를 꾸미는 '부사어'로 역할을 하고 있어. 즉, '학생들이'는 안은 문장의 서술어인 '잠들었다'의 서술어이며, '선생님이'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인 '모르다'의 서술어야.

㉔를 살펴보면, 우선 다시 ㉔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㉔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야. 안은 문장은 '그녀는 조카에게 인형을 주었다'이며, 안긴 문장은 '인형이 예쁘다'야. 이때,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어간인 '예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이 붙었으며,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공통 분모인 '인형'을 안긴 문장에서 삭제해서 '예쁜'이라는 관형절이 완성된 거야. 이렇게 완성된 관형절 '예쁜'은 안은 문장의 체언인 '얼굴'을 수식하고 있어. 다음으로, ㉔를 보자. ㉔번 선지에서 이야기 했듯이 ㉔의 '선생님이 모르게'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안은 문장의 서술어인 '잠들었다'를 수식하고 있어.

㉔를 살펴보면, 우선 다시 ㉔를 보자. 앞의 ㉔번 선지에서 ㉔는 '포부가 크다'라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했어. 즉, '큰'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어간인 '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이 붙은 형태로 '큰'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맞아. 다음으로, 아까 ㉔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자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했지? 이번에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자. '많은'은 본래, '학생들이 많다'라는 안긴 문장이며, 안은 문장과 공통 분모인 '학생들이' 삭제되고, 그 후에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어간인 '많-'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이 붙은 형태야. 즉, '많은'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맞아.

[15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 국어의 의문문 만들기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의미	가부(可否)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의문사 없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의문사 있음)
실현 방법	① ‘-아’ 계통의 어미 : ‘-녀’, ‘-(잇)가’ ② 의문 보조사 : ‘가’	① ‘-오’ 계통의 어미 : ‘-노’, ‘-(잇)고’ ② 의문 보조사 : ‘고’
예	어미 : 공덕(功德)이 하녀 저그녀 (공덕이 많으나 적으나) 보조사 : 이 짝리 너희 종간 (이 딸이 너희 종이나)	어미 : 이제 어디 잇노(이제 어디 있느냐) 보조사 : 이 었던 광명(光明)고(이 어떤 광명이나)

2. 중세 문법 격 조사

- 문항에 제시된 것만 설명합니다. 서술격 / 목적격 / 부사격 조사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주격 조사(현대 : 이/가/에서(단체)/께서(높임))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람 + 이(사람의)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 + ㅣ(부처가)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 + ∅(뿌리가)

(2) 관형격 조사(현대 : 의)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ㅅ(부처님의) 나라ㅎ + ㅅ(나라의)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사슴 + 익 = 사스릭(사슴의)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기러기 + 의 = 기러기(기러기의)

3. ‘ㄱ’ 덧생김 체언

○ 개념 : ‘모/무’와 ‘느’로 끝난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사와 결합할 때, 끝모음이 떨어지고 ‘ㄱ’이 덧생기는 체언

① 단독형 → 예) 나모(나무), 녀느(남)

- ‘ㄱ’ 덧생김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이면, ‘ㄱ’ 없이 사용된다.

② ‘ㄱ’ 덧생김 체언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 예) 남기(나모+이) / 남근(나모+은) / 남굴(나모+을) / 남기(나모+익)

년기(녀느+이) / 년글(녀느+을) / 년기라(녀느+이라)

- 즉 ‘ㄱ’ 덧생김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단어의 끝 모음이 떨어지고, ‘ㄱ’이 덧생긴다.

4. 중세의 높임 표현

(1) 주체 높임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예시
-시- / -으시-	-시-(자음 어미 앞)	가시고, 가시니
	-샤-(모음 어미 앞)	느르샤 (늘- + -으샤- + -아)

(2) 객체 높임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예시
선어말 어미 없이 특수 어휘로 실현	-습/솔-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	막습거늘 돕스보니
	-줍/줄- (어간의 끝소리 ㄷ, ㅌ, ㅈ, ㅊ 뒤)	듣줍게 얼즈뵤
	-습/솔- (어간의 끝소리 유성음 뒤)	보습게 꺾초스뵤

- [중요] 후행 어미가 자음이면 '-습/줍/습-', 후행 어미가 모음이면 '-솔/줄/솔'

[선택지 해설]

15. ④

정답해설 : 답은 ④야. 먼저, ㉠의 '이시매'의 '이시-'는 현대 국어에서 '있-'이라는 의미야. 즉, 중세의 '이시다'가 현대의 '있다'라는 의미지. 이걸 토대로 '이시매'를 분석하면 '이시- + -매'가 돼. 즉, 어간 자체가 '이시-'로, 중세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붙은 형태가 아니야. 그러므로, '이시매'에서는 ㉠을 확인할 수 없어. 대신에, ㉡에서 앞문장인 '孟子 | ㄹㄱㅅㅅ'에서는 주체가 높임의 유정 명사인 孟子(맹자)니까 서술어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ㅅㅅ-'가 붙었어. 즉, 문장의 서술어인 'ㄹㄱㅅㅅ'가 'ㄹㄱ- + -ㅅㅅ- + 오디'로 분석되어서 이 부분에서는 ㉡를 확인할 수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이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중세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을 알아야 해. 중세에서는 체언 뒤에 의문 보조사를 사용해 의문문을 만들어. 이때, 중세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 보조사는 'ㅏ'형을 가지고,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 보조사는 'ㅑ'형을 가져. 이에, ㉠은 의문사가 없고, 대답이 '예/아니오'로 나오는 '판정 의문문'이며, '중'이라는 체언 뒤에 의문 보조사 '가'가 붙은 형태이므로, ①을 확인할 수 있어.

②를 살펴보자. 중세의 주격조사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먼저,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가 붙고, 'ㅣ'모음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ㅣ'가 붙으며, 'ㅣ'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ㅇ'이 와. 즉,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주격조사의 형태가 결정 돼. 이를 ㉢와 ㉣에 대입해 보자. ㉢의 '福이'는 현대 국어에서 '복이'라는 것을 통해 일단 '주어'임을 확인했지. 다음으로, '福이'를 분석하면 '福(복) + 이'지. 이렇게 '福(복)'은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뒤에 '이'라는 형태의 주격조사가 온 것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의 '孟子 |'는 현대 국어에서 '맹자가'라는 것을 통해 주어임을 알 수 있어. 이에, '孟子 |'를 분석하면 '孟子(맹자) + ㅣ'로, '맹자'는 ㅣ모음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뒤에는 'ㅣ'라는 형태의 주격조사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즉, ㉣의 설명처럼 ㉢의 '福(복)'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서 주격조사 '이'가, ㉣의 '孟子(맹자) |'는 체언의 끝소리가 ㅣ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서 주격조사 'ㅣ'가 온 것을 알 수 있어.

③을 살펴보자. 중세의 관형격조사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쓰였어. 먼저, 높임 유정명사 혹은 무정 명사 뒤에는 'ㅅ'이 사용되었고,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는 '의/의'가 쓰였어. 즉, ㉤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정 명사 중 높임 명사 뒤에는 'ㅅ'이, 유정 명사 중 높이지 않는 평칭 명사 뒤에는 '의/의'가 쓰인 거지. 이제 ㉢와 ㉣을 확인해 보자. ㉢의 '衆生'은 평칭 유정 명사이므로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고, ㉣의 '世尊'은 부처님으로, 높임의 유정 명사이므로 뒤에 'ㅅ'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어. 즉, ㉢와 ㉣의 예시에서 ㉤을 확인할 수 있어.

⑤를 살펴보자. 중세에서는 객체 높임법을 표현하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줍/습-'을 사용해. 이때, 어간의 끝소리가 'ㄱ, ㅂ, ㅅ, ㅎ'로 끝나면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이, 'ㄷ, ㅌ, ㅈ, ㅊ'로 끝나면 '-줍-'이, 유성음, 즉 울림소리(비음, 유음, 모음)로 끝나면 '-습-'이 와. 즉, ㉥의 말대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는 거야. 그럼 이제 ㉢와 ㉣을 확인해 보자. 먼저, ㉢의 '문줍고'는 분석하면 '문- + -줍- + -고'가 돼. 즉, 어간이 '문-'이며, 이 어간의 끝소리는 'ㄷ'이므로,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줍-'이 등장해. 다음으로, ㉣의 '禮數 ㅎ 습고'는 분석하면 '禮數(예수) + -하- + -습- + -고'가 돼. 즉, 어간이 '禮數하-'이며, 이 어간의 끝소리는 모음이므로,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이 등장해. 즉, 어간의 끝소리가 'ㄷ'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다르게 나타나서 ㉤을 확인할 수 있어.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소설[23~26번 지문][윤홍길, '장마']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7)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p13) 참고하기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시골의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할머니네와 같이 살게 된다. '나'의 삼촌은 빨치산이 되어 산속 생활을 하고, 국군 소위인 외삼촌은 소대장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어느 날 외할머니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후부터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으로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지문] [출제 부분] 그러나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는 졸도를 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데,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말을 붙이며 위로하고 동네 아낙의 말에 따라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내보낸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다.

[읽기 전] <보기> + 앞부분 줄거리'는 문학 영역의 '사건 + 방향 정보'이다.

<보기>	
「장마」의 두 할머니는 뜨거운 모성애뿐 아니라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구렁이로 환생 한다는 민간 신앙도 공유하고 있다. 이념 대립 이 낳은 전화(戰禍) 속에서 극심하게 갈등했던 두 할머니 는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화해에 도달 한다. 이런 점에서 「장마」는 정서적 차원의 유대가 극단적 이념 대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1. 문제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념 대립 --- (연관) ---> 두 할머니의 갈등 --- (이해, 공감) ---> 화해 • [이념 대립 ⇔ 갈등 촉발] ↔ [모성애 + 민간 신앙 공유 ⇔ 화해 촉발]

[앞부분 줄거리] '중요하게 강조'	
한국 전쟁 때 우리 집으로 피난 온 외할머니 는 국군인 외삼촌 의 전사 통지를 받은 후 빨치산에게 저주 를 퍼붓고, 이 일로 할머니와 갈등 을 빚는다. 한편, 할머니는 빨치산인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지만 귀환이 예언된 날에 삼촌 대신 구렁이 가 나타난다.	
1. 사건 배경 파악	한국 전쟁 : 남/북 대립 ⇔ 이념 갈등
2. 등장인물 파악	외할머니 ←-----[이념 갈등]-----> 할머니
	외삼촌 (국군, 전사) - 직접 등장 X 삼촌 (빨치산, 전사 예상) - 직접 등장 X
'나' ← 어린 서술자	
3. 대략적인 사건 전개 방향 예측	할머니의 실망 → '구렁이'의 등장으로 인한 사건의 전환 가능성

[읽는 중] '잠면 끊어 읽기'

S#01.

돌멩이가 날아와 폭 꽃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고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뺨뺨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향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 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잼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에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S#02.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돌아다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흰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 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 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 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친구네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중략)

S#03.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양증스러운 눈깔을 요모조모로 빚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울어 보려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덜 놈!"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른 식구덜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헐 디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도막 같은 헛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헛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니다 여그서 이려고 층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능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허야지. 자네 노친양반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능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S#04.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 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참빗으로 빗기는 덴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헛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야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편안히 가소.”

전반적인 상황 파악

기다리던 삼촌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는 졸도해버리고,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말을 붙이며 위로하다 구렁이가 움직이지 않자 동네 아낙의 말에 따라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내보내려고 한다.

장면의 세부 구분

S#01.	구렁이를 본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작대기로 구렁이를 때려서 쫓아내려고 함.
S#02.	외할머니는 나를 말리고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 졸도해버림.
(중략)	
S#03.	외할머니는 말을 걸며 구렁이를 돌려보내려 하지만,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음.
S#04.	누군가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쫓아내라고 알려주고, 외할머니와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울 준비를 함.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심 사건 파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중심 갈등 파악</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갑자기 집에 나타난 구렁이 ↓ 구렁이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외할머니 </td> </tr> </table>	중심 갈등 파악	갑자기 집에 나타난 구렁이 ↓ 구렁이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외할머니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해결 방안 파악</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돌려보내려고 함 </td> </tr> </table>	해결 방안 파악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돌려보내려고 함																
중심 갈등 파악																						
갑자기 집에 나타난 구렁이 ↓ 구렁이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외할머니																						
해결 방안 파악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돌려보내려고 함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1. 서술상의 특징	<p>서술자의 과거 경험 회상 → 어린 서술자의 목소리 + 어린 서술자의 목소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어린 서술자</td> <td style="padding: 5px;"> • '나'의 미숙함과 외할머니의 침착함이 대조됨. (인물 성격 부각) ⇒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 어른들의 갈등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관찰, 전달 </td> </tr> <tr> <td style="padding: 5px;">어른 서술자</td> <td style="padding: 5px;"> •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찰자 시점의 한계를 보완 ⇒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td> </tr> </table>	어린 서술자	• '나'의 미숙함과 외할머니의 침착함이 대조됨. (인물 성격 부각) ⇒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 어른들의 갈등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관찰, 전달	어른 서술자	•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찰자 시점의 한계를 보완 ⇒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어린 서술자	• '나'의 미숙함과 외할머니의 침착함이 대조됨. (인물 성격 부각) ⇒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 어른들의 갈등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관찰, 전달																					
어른 서술자	•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찰자 시점의 한계를 보완 ⇒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2. 상징적 의미	<p>① 작품의 주제 의식 ⇒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민족의 정서적 합일을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줌.</p> <p>② '장마'가 가지는 의미 ⇒ 장마 =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족 간의 불행 상징 =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분단의 현실) 상징</p> <p>③ 작품의 갈등 양상</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외할머니</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국군 아들</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구렁이의 출현</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외할머니</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구렁이를 달래어 보냄</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념 ⇕ 대립</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갈등 ⇕ 해소</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할머니</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빨치산 아들</td> <td></td> <td></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할머니</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함</td> </tr> </table>	외할머니	국군 아들		구렁이의 출현		외할머니	구렁이를 달래어 보냄		이념 ⇕ 대립	⇒		⇒		갈등 ⇕ 해소	할머니	빨치산 아들				할머니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함
외할머니	국군 아들		구렁이의 출현		외할머니	구렁이를 달래어 보냄																
	이념 ⇕ 대립	⇒		⇒		갈등 ⇕ 해소																
할머니	빨치산 아들				할머니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함																

고전시가 [33~37번 지문][정극인, '상춘곡']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63)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 (p49)

[읽기 전] '제목 → <보기>를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 + 중요한 작품의 특징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기>	
『상춘곡』은 좁고 낮은 장소에서 넓고 높은 장소로 점차 확장되며 상승하는 공간의 이동 구조 를 지닌다. 화자는 '수간모옥'에서 '정자'로, '정자'에서 '시냇가'로 노래를 읊조리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다가 마침내 '봉두'에 오른다. 이는 자연과 교감하며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 가 고조되는 과정에 대응된다.	
1. 주제 의식 파악	화자 in 자연 ⇨ 자연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
2. 작품의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양상 : 공간의 이동 ⇨ 확장, 상승 • 수간 모옥 → 정자 → 시냇가 → 봉두 ⇨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과정에 대응

실전 : 지문 훑기 [주요 어휘 치환 → 주제의식]	
수간모옥(數間茅屋)	몇 칸 초가집 → 소박한 삶, 안빈낙도(安貧樂道)
풍월주인(風月主人)	자연의 주인 →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
조화신공(造化神功)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 → 자연에 대한 감탄, 놀라움
무릉(武陵)	이상향 →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

[읽는 중] '장면 끊어 읽기' → <보기>에서 '공간의 이동 구조'를 언급하였으니, 공간이 변하는 부분에서는 끊어준다.

지문 제시 부분	현대어 풀이 [EBS 풀이]
<p>S#01.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르는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험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야 다를쏘냐</p>	<p>S#01.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옛사람들의 운치 있는 생활을 따를까 못 따를까 천지간 남자로 태어나서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왜 그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몇 칸짜리 초가집을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 나무가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옛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못 이겨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겨움이야 다르겠는가</p>

S#02.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사람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욕기(浴沂)*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괴여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받아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중략)

S#04.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것인가

S#05.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벌여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펼쳐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 정극인, 「상춘곡」 -

S#02.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보기도 하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이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을 가자구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질을 하세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중략)

S#04.

나직히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 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다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구나. 저 들이 바로 그것인가

S#05.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까지도 검었던 들판이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 정극인, 「상춘곡」 -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p>①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흥취와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노래한 가사이다. 자연 속에서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와 흥취가 잘 형상화되어 있으며, 대구법, 의인법, 설의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고사를 활용하여 유유자적하는 생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p> <p>② 고전 시가 작품들 중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되는 면모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춘곡」에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면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p>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1. 표현상의 특징	<p>대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p>의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욕기(浴沂)*는 내일 하세 •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p>설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 감정 이입
	<p>설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야 다를쏘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p style="text-align: center;"> 수간모옥 ⇨ 정자 ⇨ 시냇가 ⇨ 봉두 </p>	
<p>⇨ '수간모옥'에서 화자는 열려 있는 공간인 '정자'로 향하고 '산수'의 이곳저곳을 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시냇가'에 이르러 자신이 있는 공간이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임을 느낀다. 이후 '봉두'로 올라가는데, 이는 화자의 정신적 경지가 높아짐에 대응한다.</p>	
<p>① 1회차 시험지 <보기></p> <p>⇨ 공간의 이동 : 자연과 교감하며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과정에 대응</p>	
<p>② EBS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p> <p>⇨ 공간의 이동 : 화자의 정신적 경지가 높아짐에 대응</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독서 지문 총평]

[16~19] 루이스의 원인 개념

- ①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지문과 관련. 풀어본 사람들은 익숙했을 것.
- ② 전체적인 이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례를 들어주고 그 사례로 글 전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자체로 글을 이해했다면 차분하게 읽을 수 있었을 듯.
- ③ ‘루이스의 견해’를 시작으로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면 되고, 무엇보다 구조가 명확했음.
- ④ 결국 실전에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지문에서는 사례로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내려가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음.

[27~32] 삼투압

- ① 정보량이 과할 정도로 많다. 특히 문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많이 느껴졌을 것.
- ② 이 문제를 그래도 잘 버텨낸 학생들은 읽으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 (U자형 관 / 등적 평형 /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밀면 물이 왼쪽 관으로 이동 등)
- 그림을 그린 후 수분 퍼텐셜과 삼투압의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
- ③ 지문을 읽다가, 공식이 나오면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 개념과 공식이 많아서 지문 자체는 복잡하지만 잘 정리해 두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물론 쉽지 않습니다.)
- ④ 이 정도의 정보량이 수능 지문에 출제되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능 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긴장 하는 등의 외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체감 상 이런 정보량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지문을 훈련함으로써 정보량 많은 지문을 시험장에서 만나고 견뎌내는 훈련을 해봤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모의고사는 원래 이런 지문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려고 푸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 수능에는 정보량이 과한 지문이 나왔다.

[38~42] 민사소송의 실체법과 절차법

- ① 2019학년도 수능 ‘계약’ 지문과 관련. 풀어본 사람들은 익숙했을 것.
- ② ‘법’ 지문에서는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③ 2문단에서 인정, 부인, 항변의 각각의 차이를 기억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리해두면 더 좋을 듯.
- ④ 내용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지만, 3문단부터는 각각 주요 개념들을 기억하며 내려가는데, 지문 자체의 이해도가 완성되려면 실체법 / 절차법 구분이 가능했어야 함.
- ⑤ 읽다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끊길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했어야 함.(평소에 훈련해야 함.)
- ⑥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난이도 차이는 있겠으나 1회차 독서 지문 세 지문 중 가장 기출스럽다.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38~42번 지문][민사소송의 실체법과 절차법]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 소송은 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한 개인이 특정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개시된다. 가령 을에게 돈을 빌려준 갑은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이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갑을 원고, 을을 피고라고 하며, 갑의 반환 청구권 및 을의 반환 의무가 소송의 쟁점이 된다.

을은 갑의 주장에 대해 인정이나 부인, 항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인정은 갑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로, 대개는 증거 조사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을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부인은 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갑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로, 갑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갑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갑이 자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항변은 갑의 주장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것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갑의 주장을 배척하려는 경우로, 갑이 부인하면 을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을이 갑의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을이 부인하거나 항변하면 쟁점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실체법의 법규를 대전제로 삼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삼는 법적 삼단 논법에 의해 내려진다. 실체법의 법규는 통상 ‘사실 X는 법률 효과 Y를 일으킨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 소송의 판결에 적용되는 실체법인 민법과 상법도 마찬가지다. 이때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발생·변경·소멸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사 소송의 판결은 소송의 쟁점이 된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存否)를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소송의 쟁점이 된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을 주요 사실이라고 한다.

권리나 의무의 발생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소송의 절차와 방식 등을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인 민사 소송법은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의 선정 등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스스로 주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 가령 을이 빌린 돈을 이미 갚았다고 항변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이 증거를 통해 을의 주장이 입증되면 갑의 반환 청구권 및 을의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조사·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주요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데, 민사 소송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心證)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을 ㉠법정 증거주의와 대비되는 ㉡자유 심증주의라고 한다. 법정 증거주의란 법원이 증거나 증언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계약 사실의 존재와 관련된 증거로는 계약서 같은 문서 증거만 인정된다.’ 혹은 ‘문서 증거와 증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문서 증거를 우선시한다.’ 같은 법률 규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증거나 증언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민사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상당한 범위까지 자유롭게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가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입증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주요 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를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한다.

* 변론 :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 증명력 : 사실을 입증하는 힘.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민사 소송은 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한 개인이 특정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개시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첫 문단은 항상 차분하게 읽어줘야 합니다. 첫 문단은 주제를 던지지 암시하거나, 화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의 개념 정보입니다. 차분히 읽으면서 이 정도의 개념 서술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독해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이네.' 정도의 기억으로 끝내지 말고, '민사 소송은 법적 해결 절차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시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 정도가 읽었을 때 차분히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준선'입니다.

「가령 을에게 돈을 빌려준 갑은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이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갑을 원고, 을을 피고라고 하며, 갑의 반환 청구권 및 을의 반환 의무가 소송의 쟁점이 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사례는 최대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출제자가 사례를 들어주는 것은,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이 돈을 빌려줬고, 을은 갚아야 하는데, 을이 갚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있는 일이니까, 경험자라면 더욱 잘 들어올 것 같긴 하네요.) 이것으로 민사 소송을 가볍게 이해한 후, '갑 = 원고 / 을 = 피고' 이렇게 정리해 주고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의 경우, 이미 원고와 피고 개념을 알고 있다면, 굳이 그럴 이유 없겠지만, 원고, 피고 개념에 익숙지 않다면 저 같으면 지문에 표시는 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문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쓰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1문단

을은 갑의 주장에 대해 인정이나 부인, 항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방향 정보입니다. 인정, 부인, 항변을 다 설명하겠지요. 이것은 사실 밑의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독해력을 올리고 싶다면, 문장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인정, 부인, 항변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즉, 1문단에서 갑이 돈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하면 을은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① 인정, 부인, 항변 세 가지(방향) / ② 을의 대응
- ①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까지 가능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①인정은 갑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로, 대개는 증거 조사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을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인정의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분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냥 을이 '갑 말이 맞아.' 하는 경우네요. 넘어갈게요.

②부인은 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갑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로, 갑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갑에게서 돈을 ②빌린 적이 없거나 갑이 자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부인의 개념입니다. 인정보다는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지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사례까지 들어줬으니 가볍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잘 이해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겠지만, 갑이 돈을 달라고 소송하고 을이 부인하게 되면 갑은 돈을 달라고 하는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피고가 '부인'하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정리할게요.

- ① 부인의 개념 / 특징('갑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함.' 기억! 만약 위에 원고, 피고를 손으로 정리한 학생이라면 읽을 때 아마 자연스럽게 원고가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
- ② 소송의 전체 흐름은 갑이 소송 / 을이 부인 / 갑이 입증 책임을 짐. 이렇게 정리가 됨.
- ①은 실전에서, ②는 분석 시 무제한으로 지문 읽을 때 이해해 봅시다.

③항변은 갑의 주장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것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갑의 주장을 배척하려는 경우로, 갑이 부인하면 을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을이 갑의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항변의 개념입니다. 차분하게 '부인'을 읽었다면, 둘의 차이가 눈에 뵈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차이'라서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히는 것뿐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차분히 읽다가 항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부인과 어떤 점이 비교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더 강하게 각인이 될 것이고 기억이 나겠지요. 실제 시험 때는 '이건 차이라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읽히는 것이지요.

항변은 갑의 주장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지요.(사례까지 들어줬으니 가볍게 이해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갑이 부인하면 을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는 실전에서 힘들겠지만, 갑이 돈을 달라고 소송하고 을이 항변하여 별개의 사실을 주장할 때('돈 이미 갚았음') 갑이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갚은 적 없음') 을이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돈을 이미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입니다. 정리할게요.

- ① 항변의 개념 / 특징('을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함.' 부인과의 차이를 명확히 기억! 만약 위에 원고, 피고를 손으로 정리한 학생이라면 읽을 때 아마 자연스럽게 피고가 원고의 부인에 대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
- ② 소송의 전체 흐름은 갑이 소송 / 을이 항변 / 갑이 부인 / 을이 입증 책임을 짐. 이렇게 정리가 됨.
- ①은 실전에서, ②는 분석 시 무제한으로 지문 읽을 때 이해해 봅시다.

[2문단 최종 정리]

	갑	을	갑	을
인정	소송	인정? 어 인정.		
부인	소송	부인	입증 책임	
항변	소송	항변	부인	입증 책임

-----2문단

을이 부인하거나 항변하면 쟁점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흘러갈 것입니다. 부인과 항변의 경우가 소송이 계속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실체법의 법규를 대전제로 삼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삼는 법적 삼단 논법에 의해 내려진다. 실체법의 법규는 통상 '사실 X는 법률 효과 Y를 일으킨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 소송의 판결에 적용되는 실체법인 민법과 상법도 마찬가지다. 이때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발생·변경·소멸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사 소송의 판결은 소송의 쟁점이 된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存否)를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소송의 쟁점이 된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을 주요 사실이라고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처음부터 실전에서의 '선'(①)과 '분석할 때 챙길 것'(②)들을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쓰는 것은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날 것이라는 제 주관적인 기준선입니다. 반드시 그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났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읽었던 선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① 법원의 판결은 법규를 대전제로,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삼는 법적 삼단 논법(기억) / 실체법 = 민법, 상법(기억) '이때' 혹은 '따라서' 이후는 중요하니까 조금 챙긴다고 챙긴 것이 '민사 소송의 판결은 구체적 사실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짐.' 그리고 구체적 사실을 '주요 사실'이라고 함.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이 정도가 그냥 들어오면서 읽힐 것 같아요. 뭐가 다 이해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렇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며 읽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주관적인 기준선에 불과하고, 자신은 이것보다 더 잘 읽었고 이해하고 읽었다면 잘한 것이지요. 비문학 독해란 것은 사실 심플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이라도 남기는 것이니까요.(실전에서는 여기까지)

②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기 편하게 써 준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은 분석할 때 다 이해해보는 용도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 1) 실체법의 법규 = 대전제 / 구체적 사실 = 소전제
- 2) 실체법의 법규 = 사실 X는 법률 효과 Y를 일으킨다(대전제) / 사실 X(구체적 사실, 소전제)
- 3) 법률 효과 Y = 권리나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
- 4) 사실 X = 주요 사실

1)~4)를 정리하면,

실체법의 법규는 '주요 사실 X는 /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법률 효과 Y를 일으킨다.'로 규정.

따라서 민사 소송의 판결은 소송의 쟁점이 된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存否)를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실상 3문단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결국 민사 소송의 판결은 법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를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법이나 민법에 규정된 실체법을 가지고 민사 소송의 판결을 할 때에는 법률 효과 Y를 일으키는 사실 X가 있는가를 따진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세요? 이것은 무제한으로 분석할 때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권리나 의무의 발생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소송의 절차와 방식 등을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인 민사 소송법은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의 선정 등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스스로 주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사실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 즉 ②의 상황대로 읽고 있다면, 이 내용도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전에서는 ①의 상황으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①을 맞춰보시면 되고, ②의 경우는 분석할 때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실전에서의 '선' (①)과 '분석할 때 챙길 것'(②)들을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① 절차법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절차법이네!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독해력을 갖는다면, '권리나 의무의 발생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권리나 의무의 발생에 관한 내용' = 실체법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Point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분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결국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을 규정한 실체법이고, 민사 소송법은 소송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인 절차법인 것이지요. 사실 이게 배경지식이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체법과 절차법의 개념을 잘 모를 것이기에,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3문단에서 실체법이 잘 들어온 학생(별로 없을 것입니다.)이라면 '권리나 의무의 발생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구분이 될 것이고, 3문단에서 실체법이 잘 안 들어온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4문단에서 '절차법'만 들어올 것입니다. 딱히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독해력이나 배경지식은 개개인이다 다르니까요. 처음 읽을 때, 3문단에서 실체법이 들어와서 4문단에서 절차법과 구분이 된 학생들은 잘 읽었다고 생각할 일이고, 3문단에서 실체법이라는 단어만 기억이 날 뿐 굳이 인상 깊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는 4문단에 절차법이라도 챙기면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절차법의 개념을 챙기고, 민사 소송법, 변론주의 등을 읽어 내려갑니다.

② 차분히 읽어보면 각 문단의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차법에 대한 얘기는 ①에서 다 했으므로 변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론주의는 기억에 남기는 개념 정도 될 것이고요.

따라서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스스로 주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

사실상 4문단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이 부분은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사실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2문단/ 부인 - 원고가 입증 책임, 항변 - 피고가 입증 책임)

주요 사실의 존재 입증(3문단/실체법의 법규에서 법률 효과가 적용되려면 구체적 사실, 주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어야 함)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 제출, 증인 선정(4문단/변론주의)

쉽게 설명하면, 피고가 '부인'하면 원고가 '입증 책임'질 건데, 그 원고가 스스로 주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게 변론주의이고 민사 소송법의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분석할 때, 차분히 이해해보세요.

「가령 을이 빌린 돈을 이미 갚았다고 항변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이 증거를 통해 을의 주장이 입증되면 갑의 반환 청구권 및 을의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위에 설명한 내용을 지문에서 사례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인'으로 설명했고, 사례는 '항변'이죠.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읽었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사례로 변론주의라도 이해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조사·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주요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데, 민사 소송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心證)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을 ㉠법정 증거주의와 대비되는 ㉡자유 심증주의라고 한다. **법정 증거주의**란 법원이 증거나 증언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계약 사실의 존재와 관련된 증거로는 계약서 같은 문서 증거만 인정된다.' 혹은 '문서 증거와 증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문서 증거를 우선시한다.' 같은 법률 규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증거나 증언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민사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상당한 범위까지 자유롭게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가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 / 그런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주요 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를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한다.

- * 변론 :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 * 증명력 : 사실을 입증하는 힘.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 즉 ②의 상황대로 읽고 있다면, 이 내용도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전에서는 ①의 상황으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①을 맞춰보시면 되고, ②의 경우는 분석할 때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실전에서의 '선'①과 '분석할 때 챙길 것'②들을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 ① 주의할 점. 일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2문단 정도까지는 잘 들어오고 3문단부터 흐름을 잃더니, 4문단부터 명사만 기억나고, 그러다가 5문단에는 그냥 날려 읽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이 모두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문단을 날려 읽는 습관이 있거나 자주 이런 일이 있다면, 지문 독해의 체력과 집중력을 키우셔야 해요.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말들을 정리하면, 주요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데, 민사 소송에서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원칙 즉 자유 심증주의가 적용되네요. 그 와중에 법정 증거 주의는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것이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데'라는 부분이 나왔으므로 흐름이 바뀐 것이지요.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확신을 못 갖는 경우, 입증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다고 하네요. 이것을 입증 책임의 원리라고 하고요.
- ② 2문단의 내용부터 한 번 연결해볼까요?(실전에서 이게 다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분석 시 참고하세요.) 이번엔 '항변'으로 설명해 볼게요.
 - 원고의 소송에 피고가 항변하면 원고가 부인한 경우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짐.(2문단)
 - 실체법의 법규에 따라 주요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률 효과(발생, 변경, 소멸)가 나타남(3문단)
 - 절차법의 원칙(변론주의)에 따라 주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선정해야 함.(4문단)
 - 주요 사실의 존부는 자유 심증주의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이 확신을 못 갖는 경우, 입증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리.(5문단)

문항 해설의 경우, 지문 해설을 읽고 차분하게 따져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지의 경우,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학생이 분석한 분석지 예시를 드릴 것이니 이 지문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독서 지문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풀고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분석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4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치법 (㉠은 절치법과 관련)

- ① ㉠은 판법이나 상법 같은 실체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 ② ㉠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은 특정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은 법원이 문서 증거와 증언 중에 증언의 증명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 ⑤ ㉠과 ㉡은 모두 법원이 판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변론주위에 대한 설명

4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값지로 약정한 날짜가 지나도 값지 않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증거 조사와 변론 과정을 거친 후에 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B는 A에게서 1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1억 원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한 대가로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매대 대금 1억 원과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A는 이 주장을 부인했고 B는 이 주장을 입증하는 문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B가 A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 C의 증언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사실을 입증하는 힘이 없다)

- ① 법원은 C의 증언에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겠다.
- ② 법원은 입증 책임의 원리에 따라 B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겠다.
- ③ 법원은 A의 주장을 부인한 B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A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할 것이겠다.
- ④ B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의 존재를 입증했다면 법원은 A의 권리와 B의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겠다.
- ⑤ B가 A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의 존재를 일부 인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A와 B의 다툼이 해소되었다고 본 것은 아니겠다.

A → B
원고 패소
① 항변
② 부인
B가 항변, A가 부인 → 2분단
따라 주장 입증 책임은 B에게

B는 일부 인정하며 항변함

→ A를 자문의 갑, B를 자문의 을로 치환해서 풀면 이해 쉬움!

42.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② 남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할 생각은 하지 마라.
- ③ 그는 수필 형식을 빌려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 갔다.
- ④ 보고서를 쓰기 위해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왔다.
- ⑤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고위 관리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바다에 뛰어든 심청은 옥황상제와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에 나온다. 황제는 뱃사람이 진상한 연꽃에서 심청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심청과 결혼한다.

이튿날 황제는 조회를 마친 뒤에 조정의 여러 신하들과 의논 하시고,

“황주로 사자를 보내어 심학규를 부원군*의 예로 모셔 와라.” 하였더니, 황주 자사 ㉠장계를 올렸거늘 때어 보니,

“과연 본주 도화동에 맹인 심학규 있삽다니, 몇 년 전에 마을을 떠나 떠돌아다니므로 부지거처(不知處)라.”

하였거늘, 황후 들으시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니, 친차 간절히 위로하사 왈,

“죽었으면 하릴없거니와 살았으면 만날 날이 있을 것이요. 설마 찾지 못하오리까.”

황후 크게 깨달으시어 황제께 여주오되,

“과연 한 ㉡계책이 있사오니 그리하옵소서. 백성 중에 불쌍한 이는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어린아이, 지식 없는 늙은이입니다. 그중에 불쌍한 게 병신이오나 병신 중에 더욱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모두 모아 잔치를 하옵소서.

저들이 천지의 해와 달과 별이며 검고 흰 것과 길고 짧은 것이며 부모처자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가운데에 혹 신첩의 부친을 만나겠사오니, 신첩의 원일 뿐 아니오라, 또한 국가의 화평한 일도 되을 듯하오니, 처분이 어떠하옵나이까?”

하신대, 친차 크게 칭찬하사 왈,

“과연 여자 중의 요임금, 순임금이로소이다. 그리하시이다.” 하시고, 천하에 반포하시되,

“벼슬 한 사람이나 공부한 선비나 서민을 가릴 것 없이 맹인이든 성명과 거주를 장부에 적어 각 읍으로 보내라. 이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맹인 하나라도 영을 몰라 참여치 못한 자 있으면 해당하는 지방의 신하와 수령은 죄 중 하리라.”

황제의 ㉢명령이 사리에 밝으며 신령스러우니 친차 각 도, 각 읍이 황겁하여 성화(盛火)같이 거행터라.

(중략)

심 황후가 후원에 자리를 정하시고 맹인 잔치 시키실 새, 풍악도 낭자하며, 음식도 풍부하였다. 잔치를 다한 후에 맹인 명부를 올리라 하여 의복 한 벌씩 내어 주실 새, 맹인이 다 하례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명부에 없는 맹인 하나가 우뚝 섰으니 황후 물으시되,

“어떠한 맹인이오?” 상궁을 불러 물으시니, 심 봉사 겁을 내어,

“과연 소신이 매우 가난하여 들어 있을 만한 집도 없어서 천지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밥을 부치어 떠돌아다니므로, 어느 고을 거주 완전히 없사오니, 맹인 명부에도 들지 못하옵고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